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재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7호

발행일 2001년 7월 8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7월의 기도>

평화오게 하소서

안수집사 김 동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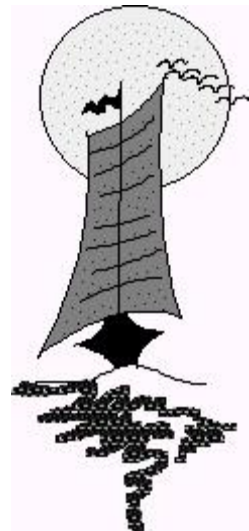
이땅이 떠들고 나라들이 소요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밝하시어
이 땅에 평화 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 노래하던
그런 평화 오게 하소서

부정과 거짓이 득끓고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빛 있어서
살고 싶은 마음 있는
그런 평화 오게 하소서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하며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평화 오게 하소서

우리들호 하여금
사랑과 공의를 행하게 하시어
주님의 교훈을 알게 하시어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호
이 땅에 세운 평화 지켜가게 하소서....



▶ 땀 많이 흘리는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1. 아이들은 본래 땀이 많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에 비해 땀을 많이 흘리고, 특히 머리 부분에 땀이 많은 경향이 있다. 부모의 체질을 물려받아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도 있다. 건강하다면 괜찮지만 땀을 흘리고 나서 기운이 빠지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다면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해야 한다.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 잘 먹지 않고 쉽게 체하거나 설사하는 아이, 부산하고 짜증을 부리는 아이, 비뚤하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아이, 호흡기 감염이 잦은 아이, 병을 앓고 난 아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발육이 부진한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쉽다.

2.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원인

땀은 체온과 대사량을 조절하기 위한 인체의 정상반응이다. 그러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땀 분비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은 땀 조절기능이 미숙해서 큰 이상 없이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한다.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열과 함께 땀이 날 수 있는데,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면 회복된다. 심장병,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같이 체력을 소모시키는 병이나 몇몇 심각한 질환에 의해서도 땀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체질적인 문제나 신체의 전반적인 리듬이 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신체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에게는 속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와 위기(衛氣: 몸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가 허약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속열이 많은 아이들은 밤낮없이 특히 움직일 때 땀이 많이 난다. 찬 것을 좋아하며 이불을 덮지 않으려 하고, 행동이 부산하고 활발하며 땀이 나도 잘 노는 편이다. 위가 허약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고 땀을 흘린 후 기운 없어한다. 앉아서 놀기를 좋아하고 쉽게 지치며,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지나치면 치료해야 한다

치르는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속열이 있는 아이들은 열이 어디에 맺혀있는지를 찾아내어 풀어서 순환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고, 위기가 약한 아이들은 위기를 보강하면서 위기의 근본이 되는 비위를 도와준다. 기(氣)가 허해서 낮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자한(自汗)이라면 기를 보해 주고, 혈(血)이 허해서 자는 동안 흥건하게 땀을 흘리는 도한(盜汗)이라면 체액(液)을 보충해 준다. 오랜 병을 앓다 보면 자한과 도한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양기와 음혈을 모두 보한다. 이런 치료법은 단순히 땀을 덜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강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1. 신발...230mm 밤색단화 700원 (김종숙 권사님)
2. 축구화...240mm 거의 새 것 700원 (김종숙 권사님)
3. 샌들...225mm 검정 색 통굽 700원 (인성자 집사님)
4. 여자아이 구두...200mm 하얀색 한번 신은 1,000원 (박순남 집사님)

생명의 양식	제목 : 축복받는 가정 성경 : 신 28:1~14	
『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서론> 가정은, *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 복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아야 할 가정이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며, 우울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쌍 결혼하면 3쌍은 이혼을 하고, 행복한가란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한 가정은 불과 약60%에 불과하고, 이중에 기독교인들이 약 80%가 행복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사람들은 이세상 것에 의하여 복이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돈, 명예, 권세, 사람과의 관계 등 * 자신이 잘 해서 복이 임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신 8:18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창 1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온전함을 지닐 때 복을 주십니다. 1) 올바른 신앙생활 * 바른 예배생활 * 쉬지 않는 기도생활 * 경건된 삶 2) 헌신적인 교회생활 * 자원적인 봉사 * 감사의 헌금 - 십일조, 감사헌금, 정한헌금	* 말은 사명에 충성 3) 사랑의 섬김생활 * 주의 종을 섬김 * 성도를 온유함으로 대함 * 영혼을 사랑 3. 하나님 축복의 3단계 * 열심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단계 * 헌신적으로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단계 *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계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넘치게 받는 복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열어 나가며, 선하고 가치있게 사용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되는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은 약속된 것이며 그 자녀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꿀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굳어

온도가 높은 꿀일수록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얗게 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 꿀이 하얗게 굳는 것은 포도당이 결정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해도 품질에는 변화가 없지만 물에 타기도 어렵고 다루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꿀을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두는 게 좋다. 온도가 낮아서 포도당이 결정으로 되지 않고 걸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해야

조개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바지락, 대합 등의 조개류는 당장 요리에 쓰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신문에 단단히 싸서 차고 갇힌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류의 냄새나 지저귀를 토하게 할 때에만 물에 담궈 두고 보관은 하루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두부-사과 보관 오래 하려면...

두부를 오래 보관해야 할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게 좋다. 이때 물에 소금을 조금 뿌려 놓으면 신선한 맛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사과는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해도 되지만 양이 많을 땐 사과상자에 모래를 깔고 그 속에 사과를 넣고 모래로 덮어두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래는 물을 조금 뿌려 약간 습하게 만든다.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그냥 실내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바나나를 먹다 남은 경우에는 실온에 그냥 두지 말고 껍질을 벗겨 속만 베닐 봉지로 싸 냉동실에 넣어두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4. 감자가 싹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

감자가 값이 쌀 땐 보통 집에서들 한 상자씩 사기 마련이죠. 근데.. 먹다 보면.. 나중엔 감자에 싹이 나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감자 사이사이에 사과를 함께 넣어두면 감자가 싹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또..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늘이 보관하세요

5. 고추장에 곰팡이가 날 때

여름 장마철을 지나다 보면 고추장에 하얀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이럴 때는 식초를 수저 뒷부분에 가볍게 묻혀서 고추장에 발라주고 햇볕을 쬐면 곰팡이가 말끔히 없어진다.

6. 파인애플 보관하는 법.

파인애플 보관할 땐 파인애플은 위쪽이 아닌 아랫부분의 당도가 2~3도 높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보관할 때 거꾸로 세워 놓으면 단맛이 균등해져서 전체적으로 단맛이 고르다.

인간의 뇌 48세까지 성장

사람의 뇌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20세 이전에 성장을 멈추는 것이 나이나 50세 가까이까지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아칸소주 재향군인보건의료센터의 조지 바조키스박사는 의학전문지 '일반정신의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한 남자 70명(19~76세)의 뇌 발달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로 측정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뇌피질에 해당하는 회백질은 사춘기 말엽에 발달이 결정에 이른 뒤 점차 쇠퇴한다. 반면 뇌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백질은 평균 48세까지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계속 발달한다.

바조키스 박사는 "알츠하이머병, 정신분열증, 마약중독 환자의 뇌에 이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전두엽과 측두엽이기 때문에 뇌 발달과 쇠퇴가 양상을 규명한다면 이들 질병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명 :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자 : 헨리 클라우드 . 존 타운센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20년 전에만 이것을 읽었더라도 내 인생의 모든 향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 빌 하이멜스(Bill Hybels),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

"이 책의 내용은 아내와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줄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 부부는 헨리 클라우드 박사와 존 타운센드 박사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가의 식견을 경건한 지혜에 집중시켜 우리처럼 상처 받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바운더리는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 데이브 드레베키(Dave Dravecky), 의 저자

"이렇게 통찰력으로 가득 찬 유익한 책을 통해, 우리는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개념 - 건전한 바운더리 - 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운더리는 우리 삶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여는 순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 존 트렌트(John Trent), Today's Family 부총재

성경과학

- 물의 순환 -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세 단계를 거쳐 순환한다. 대양이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 백 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된다.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의 표면에서 끊임없이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증발되며 식물도 증산 작용에 의해 계속 수증기를 내뿜고 있다. 보통 나무 한 그루가 일 년간 증발시키는 수증기의 양은 약 사천 내지 오천 갤론에 달한다.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흡수되지만 일단 대기의 온도가 포화점 이하로 낮아지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이 된다. 이 구름의 수증기 입자가 충돌에 의해 점점 커져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더라"(전도서 11장 3상반절).

비가 내리면 그 일부는 지하수로 갇히고 일부는 식물에 의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호수나 연못, 강, 바다로 흘러가서 순환이 되풀이된다. 바다가 비의 근원이라는 점에 주의하자.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아모스 9장 6하반절).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Pierre Perrault)와 마리오테(Edme Mariotte)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이 두 과학자는 강수(降水) 현상으로 세느 강의 흐름을 설명했다. 또 천문학자 할레이(Edmund Halley)도 물의 순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강수와 증발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과학자들은 아주 최근에야 물의 순환 개념을 수립했으나 성경은 이미 그 이 천 년 전에 물의 순환에 관해 말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전도서 1장 7절).

개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낸 위대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 <מֹשֶׁה> 모세는 '물의 아들'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건져 내다'라는 어근 <נָצַח> 마좌>에서 유래하였다.

1. 시대 배경과 출생 과정

B. C. 1527년경,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이다. 자국 내의 이스라엘인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히브리 아들 중 태어나는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린다. 이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사람들이 장차 탄압과 억압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킬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모세는 이 시기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참조, [출 6:20](#)). 남자 아이는 출생 즉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시대였으므로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버렸다(참조, [출 1:22](#)).

2. 바로 왕궁의 모세

강물에 버려진 아기 모세는 강가에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구출된다. 이후, 강변에서 떠

내려가는 동생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중재로 모세의 모친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시의 대국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는 모세는 애굽인들의 지혜와 궁궐 생활의 예의, 예술 등을 배운다(참조, [행 7:22](#)). 모세는 애굽 왕실 생활을 40년 간 익혀 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왕실 40년 생활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참조, [출 6:20](#)).3. 출애굽의 지도자

애굽 생활 중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죄를 범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고 만다. 그는 남방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집에 체류하던 중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출 3:1-4:17](#)).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협조자로 하나님이 내정한 형 아론의 도움을 입어 애굽으로 돌아온다. 모세는 도망자로 떠났던 애굽을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바로에게 열 가지 큰 재앙을 선포한다(참조, [출 7:20-12:30](#)). 마침내 B. C. 1446년 아빕월(3-4월경)에 이스라엘 60만 장정과 가축, 재물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된다(참조, [출 12장](#)).

4. 광야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광야 길에서 이후 40년 간 모세의 지도를 받게 된다(B. C. 1446-1406까지), 홍해를 건너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당도하였는데(참조, [출 17:2-16](#)), 여기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과 종교 지침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온다(참조, [출 31:18](#)). 출애굽은 하였지만 애굽 노예 생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의 반하나님적 작태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정탐꾼을 편성하여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였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B. C. 1406년, 그의 나이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는다(참조, [신 34:6](#)).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무덤을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할렐루야"

오늘 당신과 면회를 하고 난 후, 이곳 수원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펜을 든 거야.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기분이 묘했다고 해야 할지.....

지금은 오후 4시 30분이야. 당신이 나와 면회 할 때 이런 이야기하였지?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 받아 보았느냐고 말이야. 면회 끝나고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장의 편지가 도착 했더라구...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

경환이 엄마! 지금이 우리가 제일 힘든 때라고 생각해.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하여 한 가정이 힘들게 된 거 같아.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그런데도 경환이를 데리고 잘 견디며 생활해 주는 것을 보면 난 이곳에서도 흐뭇하고 힘이 나.

오늘 당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앞으로...아니 내가 이곳에서 출소 할 때까지 힘든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또 당신과 경환이,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당신을 보내고 이곳에 들어와 보니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생각해 보니 오늘이 금요일이더라구. 그래서 나도 빨리 성경책을 갖고 참석했지. 사도신경, 기도, 찬송가, 주기도문 다 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니 성경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지 않았어. 하지만 꼭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온함이 생겼어.

경환 엄마!! 끝까지 사랑할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힘들어도 참고 잘 견뎌 줘.

참..그리고 이 곳에서는 공장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 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회에서 할 수 없다고 봐야 해. 아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용성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쇼핑백 손잡이 만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제 궁금한 내용 이야기 해 주니까....어때...웃기지?

경환 엄마!! 이 편지를 먼저 받아 볼지 아니면 전화를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당신만을 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할거라는 거 잊지 마. 정말 사랑해....영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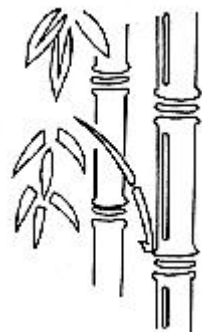
또 편지할게.. 자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래.

그럼 잘 자요♡

추신..우리 정말로 힘내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안부 전해 주어...

2001년 6월 1일

수원에서 길이가~~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아멘

경환 아빠에게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곳에서의 생활 답답하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깐 난 걱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마음도 무겁고, 때로는 너무 힘에 겨워서 주춤할 때도 있지만 이길 수 있어요.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참고 살아갈 거예요.

당신도 그럴 수 있지요? 언제나 주님은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 믿지 말아요.

참....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요즘 두 분 다 아주 잘 계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모든게 다 당신이 기도한 덕이고, 주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지요. 어제 또 어머님 아버님 뵈고 왔어요. 서로 감싸주며 위해주는 모습 보면서 많은걸 느꼈어요. 예전에 다투실 때는 용서가 안됐는데 지금은 아니예요. 우리 가정 하나 하나 변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느껴요.

여보!! 난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해요. 어찌 생각해 보면 당신을 만난 것도 그리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 안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주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분들이 도전 받을 수 있도록 말예요. 당신 역시 멀지 않아 신앙 안에 들어와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심방 받은 말씀.... 당신한테 편지로 보냈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항상 그 심방 말씀 가지고 기도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자구요.

요즘 당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귀염둥이 경환이가 얼마나 잘 자라 주는지 대견해요. 가끔씩 말썽을 부리기도 하지만 기특할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아빠한테 편지 하는 거 보면 저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의젓해 보이는지....

요 몇 일 동안 경환이가 좀 아팠었는데 그때 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럴 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될까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는 말아요. 열이 많이 나고 아파하는 경환이를 안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잠에 취해 있는 경환이의 모습은 얼마나 건강하고 평만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의 경환이는 기도로 살아야 하는 아이란 걸 느꼈지요. 우리 둘 경환이를 위하여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자구요.

알지요? 내 소망이 무엇인지..... 나랑 당신이랑 경환이 손잡고 성도를 앞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요. 그거 알지요?

우리 가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길 기도해요.

여보!! 사랑해요.

하나님 저희 가정 비록 볼 것 없지만 저희 작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아멘...

당신에서 희가.....

할렐루야!! 순복음중앙교회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코흘리개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에 권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출발로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년이 되기까지는 교회 생활은 하였지만 그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때는 아주 단조로운 모습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나 헌신의 모습이 없었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도 믿음을 보지 않고 그 가정의 형편과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내 눈에 보이는 시댁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오로지 우상 숭배만 열심히 하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동네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절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하나님은 제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집안에 친척 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착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해 주시길 약속하면서 시아버님과 남편의 이름을 적어 가셨습니다. 역시 목회자의 능력 있는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미신을 지키시던 아버님께서 교회에 다니라는 허락을 하셔서 어머니가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고 나 또한 당진순복음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섬긴 목사님이 친척이셨던 강선출 목사님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 수가 너무 없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 남편과 세상은 날마다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방황하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목사님께서 외국으로 선교 차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한승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이 아름다운 순복음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만남은 내 생활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나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품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한히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숨을 쉬며 또 하루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3남매가 있습니다. 딸 선정아와 선영이 막내로 아들 승철이.... 모두 착하며 혼탁한 세상 안에 섞이어 살면서도 어느 곳 한 군데 모난 곳 없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공부를 잘하여 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아들 녀석은 무척 걱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에다 공부도 남들에 비해 조금 뒤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승철이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드럼을 힘겹게 배워 봉사도 하였고, 목사님 차가용과 교회 봉고차를 맡아서 세차도 해 드렸습니다. 난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내심 고 3짜리가 공부는 하지 않고 온갖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대입 문제를 놓고 3일을 걱정하여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도 금식기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동양 공전에서 등록금을 준비해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승철이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 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승철이를 주님은 잊지 않고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열거하기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세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간증 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족하지만 몇 자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전달법'이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문제를 소유할 때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고 또 그에 대한 부모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어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나 전달법'이 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나 전달법'은 '직면적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 '긍정적 나 전달법'은 문제를 서로 소유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달법은 칭찬과는 다르다. "참 착하구나. 예쁘기도 하지"라고 우리가 평소에 하듯 칭찬하는 것은 걸림돌을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좋은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만, 그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평가한 셈이다. '착하다, 예쁘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평가가 들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긍정적인 '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가 엄마 일을 도와 설거지를 해주니까(서술) 엄마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영향) 너무 기분이 좋아(감정)"라고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인간관계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럴 때에는 '개방적 나 전달'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평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는 초록색이 좋아(감정). 왜냐하면 초록색을 보면 숲이 생각나고 편안한 마음이 되거든(영향)"라고 할 수 있다.

또 "엄마는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은 정말 싫더라. 거리도 더러워지고 보기 싫기도 하고 말이야." 라고 '개방적 나 전달법'을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나눈다면 자녀들이 '아, 엄마는 그런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평소에 '개방적인 나 전달'을 많이 해놓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다 잘 알게 될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부모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자기들의 행동을 맞추려 애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것과 달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상이 되거나 걱정이 될 때, 미리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나 전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나 전달법'을 '예방적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 쇼핑에 데려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가 걱정된다면 그 전날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내일 너랑 쇼핑 갈 텐데 걱정이 돼(감정). 쇼핑하는 도중에 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게 되면(서술), 엄마가 시장을 다 보지 못하고 오게 될까봐(영향)."라고 하면 정확한 '예방적 나 전달'이 된다.

이렇게 자녀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오늘 몇 가지 다른 '나 전달'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4. 뉴에이지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

뉴에이지운동의 목적은 세계종교의 통합에 있다. 통합(統合)은 연합(聯合)과 다르다. 통합은 어떤 종교라도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자는 일종의 타협(妥協)이다. 그러나 연합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만을 앞세우고 그 아래서 함께 어울리는 조화(造化)를 말한다. 기독교(예수)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임을 주장한다. 타종교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사회학이나 철학에서 종교의 하나로 불리는 것조차 거부하는 독선(獨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결코 마음이 옹졸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종교의 탈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의 불 못으로 데려가기를 꾀하는 사탄의 여러 색깔의 다른 옷에 불과할 뿐이며, 뉴에이지 운동은 모든 종교를 다시 하나로 엮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술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에큐메니칼(Ecumenical)운동'을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W.C.C.)'는 그 위험수위(?)를 넘었다. 원래의 에큐메니칼 정신은 선교지에서의 복음의 혼돈과 교파간의 분열을 염려한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안에서의 '복음의 확산'과 '교회간의 단결'을 위하여 결성된 순수한 연합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1910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제1차 세계선교사총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그후 1948년 많은 교회들의 관심 속에 '세계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Churches)'가 창설되었다.

세계교회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교회들로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몸된 교회들을 섬김"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1954년 제2차 총회에서는 163개 교단이 참여하였으며, 1961년 제3차 총회에서는 197개의 교단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점차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본래의 순수한 에큐메니칼 정신은 변질되어 가고 있다.

기구의 확대는 각 국의 회원 교회(N.C.C.)를 섬기는 자세에서 명령하는 고자세로 바뀌었고, 복음과 선교의 문제보다는 사회구제와 정치, 인권문제로 방향을 고쳤으며, 더 큰 문제는 타종교에 대한 배려(?)가 다원주의를 배출하여 이제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뛰어넘어 타 종교와의 타협을 통한 통합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때는 한국의 이대 모교수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限)풀이 곳을 했는데, 창호지에 적힌 각종 전설조상과 귀신의 더러운 이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까지 집어넣고 불태워 한(限)을 풀어 주었다고 하니, 이러한 W.C.C.를 주님은 그래도 교회를 위한 기독교 단체로 인정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교단은 점점 늘어 현재 320개 교단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후6:14-16).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화포리 동경 128°36분 북위 38°11분 3초에 위치한 동해안 천북단의 해수목장이며 바닷가에 호수 둘레가 16km인 수천 년 세월을 거쳐 조개껍질과 바위가 부서져 생긴 연못호인 화진포호는 송지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 3대 석호중 하나이다.



강원 지방기념물 제10호. 면적 2.3 km². 호안선 길이 16 km. 경승지여서 수복(收復) 전에는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다. 담염호(淡鹽湖)로, 연어·송어·도미 등 서식어가 많아 낚시터로서도 유명하며, 겨울에는 백조(천연기념물 201)가 찾아온다. 호수와 바다 사이의 백사장은 해수목장으로 이용된다.

무뎀뎀한 표정의 백사장이 좋으며 사람을 반기지도 않는 그렇다고 멀어내지도 않는 변덕 없는 차분함이 좋아 한번쯤은 가 볼만한 곳이다.

꼬약 거리는 갈매기도 없고, 텃버드는 파도도 없고, 어둔 밤 멀리 오징어장이 배들이 커놓은 불빛만이 상대방 눈동자에 비칠 뿐이다.

이쁜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좋은 곳이며,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도 좋은 곳이다.

본시 이쁨도 미움도 없는 것 아닌가!! 내 마음에 편을 가른 것뿐이지.....

자! 떠나자 ... 동해 바다로....삶의 희망을 장으려.....

부산에서 출발하는 가장 긴 국도인 7번 국도를 따라 주문진을 거쳐 해안도로를 타고 북으로 통일 전망대를 향하여 계속 돌진하면 나온다. 이곳에서 십여리 북단에 위치한 3.8선 해수목장은 조용함이 더 할 수 없이 아늑한 곳..... 경사도 완만하다.

이번 여행의 M.V.P는 단연 아흔 아홉 고개를 완주하신 윤희자 전도사님 일 것이고, 두우머 삼총사인 송미정, 장명희 권찬님, 구옥순 성도님의 영을 깨우는 무전 안내 방송 덕분에 무사히 먼 여행을 은혜롭게 마친 것 같다. 또 한 분....

“복 것두 없는디 왜 뽕뽕 도신데유?” 어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웃 닭>

성도의 맛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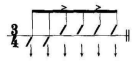
주재료 : 참 웃나무2~3단, 토종닭 1마리, 마늘 3통, 은행 10개, 밤 6개, 생강 1쪽, 대추 10개, 파 또는 부추, 당근 약간씩,, 소금, 후추, 통깨.
(파, 부추, 당근은 잘게 썰어놓는다.)

1. 참 웃나무를 깨끗이 씻어 들통에 넣고 물 두세 바가지 넣고 약한 불에서 두세 시간 끓인다.
2. 육수에 토종닭, 마늘, 밤, 대추, 은행, 생강, 소금 약간 넣고 1~1시간20분 정도 끓인다.
* 압력밥솥은 소리 나는 시간부터 25분정도 두면 된다.
3. 닭은 먼저 꺼내서 드신 다음 남은 육수에 불린 찹쌀을 넣고 적당하게 죽을 끓인다(죽을 예쁜 그릇에 담고 위에다 잘게 썬 파, 부추, 당근, 후추, 통깨를 얹어서 낸다).

김현숙 집사

☎357-5869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

J. Newton, 1779
St. 4, Source unknown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5)

AMAZING GRACE: 8.6.8.6.
Traditional American Melody
Carrell and Clayton's Virginia Harmony
Arr. by E. O. Excell, 1900

보통으로 ♩=92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와 사랑



찬양으로 받은 은혜

유영자 집사

몸이 몹시 아팠던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진정 은혜 받게 하고
눈물 흐르게 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많은 병으로 인해 고통 당하며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픈 갈등 속에서
이 찬양은 나를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주의 살리시는 은혜를 입어
병이 많이 치료되었고
저는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 할렐루야! ”

오 행 시

==> 목사의 심장 <==

집사 박순남

목...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 사명자의 길이어
의... 의를 위하여 한평생 걸어온 길
심... 심히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장... 장한 그 길 면류관의 길

*** 목자의 심장 ***

원사 김종숙

목.....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의(에)..예속 같이
심.....심히 기쁜 마음으로
장.....장래의 면류관을 바라보겠습니다.

◆ 정의

「사이버중독(Cyber Addiction)」이란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독"의 의미는 지나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하여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이 발현됨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즉, 사이버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웹에 매달려 컴퓨터를 끄고 빠져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 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은 떨어지는 내성현상, 그리고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어떤 E-mail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는 금단증상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사이버 중독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증상에 의해 단정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 활동상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중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 분류

사이버 중독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통신중독, 게임중독 및 음란물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통신중독 : 통신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 종 류 : 채팅, 머드게임, 정보서핑, 사이버트레이딩, 도박, 쇼핑 등

◆ 원 인 : 통신을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빠지게 됩니다. 통신상에서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신의 고민이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채팅에 빠지게 됩니다. 채팅을 이용한 이성간의 만남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영화, TV 드라마 등으로 인하여 채팅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증상 및 문제점

- 과도한 통신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자기통제력의 상실,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어의 압축화, 은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파괴로 올바른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채팅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인신매매, 성폭행 관련 사례 다수 발생)

② 게임중독 :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 지나친 게임은 중독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종 류 : 아케이드 게임, 액션 게임, 어드벤처 게임, 롤플레이팅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머드(네트워크) 게임 등

◆원 인 : 점차 어려워지는 게임의 특성상 아쉽게 끝이 난 게임에 대하여 끝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폭력게임의 경우,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능을 만족시킵니다. 가상공간에서는 강력한 파워 맨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성취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과 달리, 네트워크 게임의 경우 매번 다른 상대에 의한 새로운 게임 환경 조성으로 참여자로 하여금 게임에 빠지게 합니다. 현실공간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반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은 현실을 잊고 강력하게 표현 되는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상 및 문제점

밤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 졸거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며 특히, 게임중독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게임의 폭력성에 노출되고,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되어 현실에서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리셋증후군(Reset syndrome)** :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열린 리셋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맘에 안 들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을 '리셋(reset)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셋증후군'은 아이들 사이에 참을성 없는 행동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심지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③ 음란물 중독 : 특히, 청소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독으로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 인 : 부모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통제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컴퓨터 음란물은 친구, 컴퓨터 상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방대한 양을 제한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란물과 달리 컴퓨터음란물은 여과과정 없이,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변태적인 내용도 고화질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증상 및 문제점

컴퓨터 음란물 중독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음란물에 접근하고, 밤새도록 보고 낮에 졸거나, 부모와 대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음란물을 보고 나서는 연상작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으며, 성충 등의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내용의 설정이 대다수인 음란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며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중독에 빠지기 쉬운 타입

① 온라인을 알기 이전부터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54%가 이전에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34%는 고민에 시달렸으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② 이전에 알콜 중독자였거나 다른 중독 증세가 있었던 사람

연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알콜중독, 약물 의존증, 강박적 도박, 다이어트 장애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다룰 때에도 이전의 중독증에서 보여 준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과도한 행동, 위로를 받기 위한 의존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 기술자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자유업자, 학생 등) 사회와의 거리감이 있고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입장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비숙련 초보자들(전업주부, 실업자등)이 오히려 사이버 중독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아닌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인 경우도 인터넷 중독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대화상대가 없어 채팅룸에 모여들고 있으며 그저 대화가 즐거워서 채팅 룸을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넌센스 모음 베스트10]

1. 서울시민 모두가 동시에 고함지르면 무슨 말이 될까?

-천만의 말씀

2. 금은 금인데 도둑고양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금은?

-야금야금

3. 진짜 새의 이름은?

-참새

4. A젓소와 B젓소가 싸움을 했는데 싸움에서 B젓소가 이겼다. 왜일까?

-A젓소는 "에이~ 젓소" 이고 B젓소는 "삐 젓소?"

5.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를 4자로 줄이면?

-개인지도

6. 토끼가 젤 잘 하는 것은?

-토끼기... (도망치기..)

7. 먹고살기 위해 하는 내기?

-모내기

8. 가슴의 무게는?

-두근두근 해서 총 네 근

9. 똥의 성은?

-응가

10. 아홉 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

(해군 함장과 해군 일병)

군함 한 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 속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다.

군함정면에 나타난 불빛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상대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시오!"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다.

"난 해군함장이오.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다.

"나는 해군 일병이오.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화가 끝까지 난 해군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여기는 등대다. 니 맘대로 해봐라!!!"



인공호흡과 마사지

인공호흡의 순서는 먼저 기도유지를 한 다음 인공호흡을 하며 마사지를 병행 합니다.

1. 기도유지

기도 또는 숨통이란 공기가 입과 코로부터 기관을 거쳐서 폐까지 가는 공기 통로입니다. 이 공기 통로를 열어주면 대부분의 환자는 호흡이 편해지고 호흡이 멎은 환자라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도 유지는 구명처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처치법입니다.

기도 유지는 의식이 없는 경우, 호흡이 멎는 경우, 호흡운동은 해도 숨을 들이마실 때 목 언저리나 가슴 복벽이 부자연스럽게 꺼지거나 코고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코와 입으로부터의 공기 출입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해도 저항이 있어서 공기를 폐로 잘 들여보내지 못하고 가슴의 움직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랫턱, 목, 혀 등에 힘이 빠져서 혀뿌리 부분이 인두 쪽으로 처져 숨통을 막아 버리거나, 인두부에 이물이 걸려서 숨통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을 열고 입 안을 자세히 살펴 기도가 막혀 있을 때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 유지 방법은 한쪽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목을 뒤에서 쳐드는 듯이 해서 머리 부분을 뒤로 젖히거나, 어깨 밑에 베개나 타월을 깔고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호흡은 기도를 확보해도 호흡이 멎어 있거나 호흡의 양이 극히 적을 때 시작합니다.

입 대 입의 인공호흡법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를 누르고 있던 손을 떼어 붙어넣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환자의 입 둘레에 덮어 씌워서 환자의 가슴이 약간 볼록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에 자기 귀를 입 가까이에 가져가면 환자가 토해 내는 공기의 흐름이나 소리를 귀에 느껴 인공호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조자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서, 다음 불어넣기에 대비합니다.

인공호흡을 시작할 때의 처음에는 숨통 개통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용히 불어넣고, 다음의 세 번은 빨리 강하게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5초에 1회,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3초에 1회의 리듬으로 인공호흡의 동작을 되풀이 합니다.



입 대 코의 인공호흡법은 입 대 입의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실시합니다.

먼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숨통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목의 밑에서 받치고 있던 손을 아랫턱으로 옮겨 아랫턱을 앞으로 밀어내어 입술을 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셔 자기 입술로 환자의 코를 덮어 싸듯이 대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갈 때의 느낌, 공기가 나갈 때의 가슴과 복벽의 움직임, 소리의 느낌 등은 입과 입의 경우와 같습니다.

신생아, 젖먹이 어린이 등에는 입과 코 양쪽



에 구조자의 입을 덮어씌워 입과 코의 인공호흡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어넣는 강도는 환

자의 가슴 상하운동을 보면서 불어넣어 너무 힘을 주어 불어넣지 않도록 합니다.

3. 인공호흡과 마사지

심장이 멎고 4~6분 이상 뇌에 혈액이 보내지지 않으면, 뇌는 산소부족에 의한 까닭에, 설령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도 뇌의 활동은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해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 주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 정지는 맥이 짚이지 않을 때,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호흡이 멎었을 때, 의식이 없어졌을 때, 동공이 열렸을 때를 말합니다. 맥박이 짚일 경우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짚이지 않을 경우는 즉시 심장 마사



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1초에 1회의 비율로 흉골을 척추로 향해 3~5cm

내리 누르도록 하고, 이때에는 흉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는 똑바로 뻗친 채 상반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흉골을 수직으로 압박합니다. 이어서 손은 흉벽에 놓은 채 위치를 바꾸지 말고 손 힘만 완전히 빼도록 합니다. 흉골을 압박하는 시간은 힘을 빼고 있는 시간과 거의 같게 합니다. 이때 설사 손가락이 가슴 벽에 닿더라도 손가락 끝에는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이 침대 위 같은 데서 가라앉거나 바운드되지 않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는 사이를 이용해 바닥이 단단한 곳으로 옮깁니다. 침대 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충분한 두께가 있는 판자를 환자의 등 밑에 밀어넣도록 합니다.

단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데는 30초 이상 시

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자가 1명일 때에는 흉골압박 심장 마사지 15회,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 2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구조자가 2명이면 한 사람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5회의 흉골압박 후에 1회의 비율로 인공호흡을 합니다.

이 경우 흉골압박은 1초에 1회의 속도로 하고, 5회째의 흉골압박시 힘을 빼는 시점에서 숨을 불어넣기 시작하여 환자가 숨을 다 토해 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흉골압박을 시작합니다.

구명처치를 하면서 도중에 가끔씩 경동맥의 맥박을 짚어 보아, 흉골압박 마사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유효한 심장박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단 이 때문에 심장 마사지를 5초 이상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환자의 맥박이 1분간에 50회 이상 짚이거나,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 마사지를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한 손으로, 젖먹이에게는 두 손가락 끝을 이용해 1분에 80~회 정도로, 반대쪽 손을 허리 가운데 넣어 흉골압박의 힘을 지탱하도록 합니다.



☹️ 철부지의 고백 ☺️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거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 것이 그냥 낯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양육

자녀를 위한 기도문(더글라스 맥아더)

▶ 창의성을 꺾는 20가지 말 [☞ 베스트베이비]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악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게
패한 자를 감싸 안을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뽐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로하여 그의 아비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1.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2. 얼씨구 잘한다!
3.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 내가 해줄께
4. 애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5. 어린애는 그런 것 몰라도 돼
6. 제발 좀 치워라
7. 왜 너는 바보같은 것만 물으니?
8. 이것은 규칙이야. 그대로 해야돼
9. 너는 너무 어려서 안돼
10. 웬 말이 그렇게 많니? 하라면 할 것이지
11. 여자면 여자답게 놀아야지
12. 참견말고 네 할 일이나 해
13. 넌 아무래도 좀 미련한가 봐
14.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15. 야,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야
16.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17. 하늘은 하늘색으로 칠해야지.
그런 색 하늘은 없어
18.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엉뚱하
니?
19. 아니 뭐! 그런 당연한 걸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
20. 그건 해 보나 마나 안돼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

21.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을 서기 전 1000년경 다윗 왕은 그 땅의 주인 아라우나로부터 은 50 세겔을 주고 구입하였고(삼하 24:18-25), 그의 아들 솔로몬은 페니키아인들의 도움으로 화려한 궁전과 여호와 의 성전을 건설하였다.

서기 전 586년 이곳을 침략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불태웠으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유배 시켰다.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전 515년에 소규모로 성전을 재건하였다. 이것을 제2성전 (2nd Temple) 이라고 부른다.

22. 황금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성을 내려다 보면 정면에 있는 성전산의 동편으로 담을 쌓아 막아 버린 문을 보게 된다. 이 문이 11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불리던 문이다. 유대인들은 '자비의 문'이라고도 부르며,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 부른다.

이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문도 이 문이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불구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푼 것도 이 문에서였다. 이 문은 1530년 오토만 터어키에 의해서 막혀지고 말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메시아가 바로 이 황금문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입구 쪽에는 무슬림들의 무덤 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23. 통곡의 벽



오랫동안 '통곡의 벽' (the Wailing Wall)이라 불리고 있는 이 성벽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서쪽벽을 일컫는다. 최고 14 m 의 길이와 400 t 이나 되는 돌을 비롯하여 평균 1 ~ 3 t 의 돌을 이용하여 쌓은 높이 16 m의 이 성벽은 헤롯 대왕 때의 것으로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 건축이 시작되어 약 60여년 동안이나 걸쳐 지은 것들이다. 이 헤롯의 성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때 지렛대로 "돌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으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통곡의 벽 아래 부분은 당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24.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 라고도 하는 기드론 골짜기는 성경에 12번 정도 나오는데, 시내, 골짜기, 와디 등으로 소개된다. 오늘날의 지형은 과거보다 3 ~ 12 m 정도 높아져 있다. 기드론 골짜기는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이다. '여호사밧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등과 어우러지기도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루살렘 북서쪽의 전망산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성과 감람산을 가로지른다. 성 동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때에나 겻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으로 올라 기도할 때에나, 또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에도 매번 이 계곡을 건너셨다. 훗날 부활을 위한 최후의 심판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서인지 사후에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걸어서 10분정도 거리면 힌놈의 골짜기와 맞닿는 기드론 골짜기에 이른다. 오늘날은 아랍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감람산까지 이동하면 걸어서 10 ~ 15분 정도이다.

■ 여름성경학교의 유래

1. 여름성경학교의 시작

여름성경학교는 로버트 지 보빌(Robert G. Boville) '이 시작했다. 그는 1853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출생, 베를린 대학, 파리 대학 등에서 연구한 뒤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했다. 그리고 캐나다 해밀톤 침례교회에서 10년간 목회 하면서 가난으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무산 아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90만 빈민 아동을 보육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다. 그 후 뉴욕선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1901년부터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이를 전 세계로 전파시켜 가면서 세계 무산 아동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

2. 한국에서의 여름성경학교

1922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교사 5명, 학생 100명으로 '하기아동성경학교'를 시작하였다. 그 이듬해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아동성경학회'를 조직하고, 1924년 3월 31일 주일학교연합회 안에 '하기아동성경학교위원회'를 두어 창시자인 보빌 박사를 초빙하였다. 하기성경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체육, 음악, 성서, 위인전, 수공(공작), 사회 봉사 등을 제정하였으며, 문맹 퇴치와 하나님 나라 시민 양성,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었다. 그 당시 주일학교연합회 총무로 선출된 감리교회 김기연 목사는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하기성경학교를 보급하였는데, 1924년 하기 사업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 하기학교가 49곳, 교사는 154명, 학생은 3000여 명에 달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 김기연, 한석원 총무가 하기성경학교 발전에 활약이 컸으며, 1928년에는 김형식 목사가 전임 총무가 되어 한국 하기성경학교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하기성경학교는 당시 세계 선교 지역에서 가장 돋보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사실 이런 단기간의 발전은 각 교회 청년,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열성에 힘입은 것으로 1937년에는 학교 945곳, 학생 75154명, 교사는 5240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할 교육 기관이 적었던 1930년대 당시 세계하기성경학교협회 부회장이던 윤치호 박사는 하기성경학교에 대해 '오늘날 조선의 사정으로 보아서 배울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다. 여름철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종교의 훈련도 주는 이 운동은 우리로서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미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사업이다.'라고 말함으로 하기성경학교가 매우 유용한 자리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밖에도 하기성경학교의 발전은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겨레에게 정신 각성, 단체 생활 훈련, 우정 회복, 기독교 문화의 선전과 보급, 기독교 윤리의 실천 등을 제시해 주었다. (출처: 『한국감리교회사』, 이성삼, 교육국, 1980, 64~70쪽)

■ 여름성경학교의 교육 목적

1. 여름성경학교의 일반적인 목적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말씀을 배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게 한다.

- 지고의 선을 위해 일하게 한다
-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신앙을 나누게 한다
-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통으로 갱신해 가게 한다.
- 교회의 양육과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한다.
-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
- 신앙에 근거하여 윤리적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한다.
- 하나님의 은사의 청지기로 봉사하게 한다.

2. 여름성경학교 핵심목적

- 1) 영혼구원에 있다.
- 2) 잃은 자 찾기에 있다.
- 3) 양육에 있다.

■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챙겨야 할 유의사항

1. 성경학교 일자와 기간을 적절하게 잡아야 합니다.
2. 조직(위원회)을 세워야 한다.
 - * 준비위원회 - 기획, 예산, 홍보, 교사확보, 협력부 구성, 프로그램 결정, 강습회 예정 등
 - * 진행부 - 교장, 부장, 총무, 서기, 회계, 각반교사
 - * 교사회 - 각반담임, 보조교사
 - * 총무부 - 행사 프로그램 준비사항 지원
 - * 협력부 - 차량, 식사, 보건, 기도, 청소, 행정(컴퓨터), 아동관리, 전화교환 등
3. 교단에서(필요시 타 단체 가능) 실시하는 강습회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다.
4. 자체 강습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교사들의 자질을 체크한다.
5. 재정을 확보하도록 지원 요청을 해 놓고, 후원금(찬조금)을 받도록 한다.
6. 야외활동(예, 체육대회) 장소를 확보(공문발송)하라.
7. 지역사회에 홍보하라.
8.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라.
9. 학부모님과 만남을 가지라.
 - * 전화통화, 가정방문
10. 행사 기간의 날씨를 점검하라.
11.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12.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여 통계를 내도록 한다.
 - * 출석, 아동활동 등
13. 담임교사에게 가급적이면 피곤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라.
14.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출석하는 아동들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15.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여름성경학교 추세를 이어가도록 한다.
16. 교인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한다.
17. 수고한 교사들을 위로한다.

♫ 맥추절 ♫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19)

1. 절기의 종류

- 1) 유월절(출12:43, 신16:1) - 유대인의 3대절기(축제일)의 하나로 칠칠절, 초막절 중에 최초의 명절을 가리킨다. 처음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목축제(牧畜祭)였는데, 여기에 농경제인 무교절과 여호와께 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애굽의 처음 것을 모두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통 과하셨다는 역사적 중대한 사건의 의의가 더해져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 혜의 축절인 동시에 민족 탄생의 중대한 기념일이다.
- 2) 무교절(출23:15) - 유월절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다. 사 도바울은 이것을 깨끗한 생활의 상징으로 말했다(고전5:8).
- 3) 초막절(수14:16, 18) - 티스리월(태양력9-10월), 즉 7월 15일(추분 날에 가까운 만월)에서 1주간, 후에는 8일간으로 연장하여 지켜졌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끝마치고 새해로 들어가서 지키므로, '수장 절(收藏節)'로 불리웠다(출23:16, 34:22). 포도, 무화과 등의 수확제이고, 감사로서 제를 마치며, 해를 맞이 했다. 이 초막절에는 회당에서 전도서가 낭독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70마리의 수소가 세계의 나 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바쳐졌다(민29:12-38).
- 4) 오순절(레23:15-16, 행20:16) - 구약에 있어서는 '칠칠절'로 불리우는 것인데(출34:22), '(유월절 시 기에)보리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 다음 날', 즉 50일째로 정해져 있다(레23:15-16, 23:민 28:26, 신16:9,). 이에 의하면 제사는 가나안의 토지를 주시고, 작물을 결실케 하신 아훼 하나님께 대하 여 처음 것을 드려 감사하며(민28:26), 기뻐 즐거워하는 축제이다.
- 5) 나팔절(민29:1) - 유대력 7월의 초1일에 지킨 성회를 가리킨다. 유대교가 확립되고서, 1세기가 되 면서는 이것이 신년제로 되게끔 되었다.
- 6) 부림절(에9:24-32) - 유대인이 하만의 악계(惡計)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7) 맥추절(출23:16) - 이스라엘 백성의 3대 감사절(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의 하나이다. 양력의 5 월말-6월, 밀 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하여 드린 불 작물의 수확감사제로서 축하되었다(출23:16). 유월절부 터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칠칠절}(출34:22, 신16:9-11), 또는 {오순절}로도 불리웠다. 이 날에는 회 당에서 룻기가 낭독되었다. 후에 이 날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날로서 축하되고, 다시 그리스도 의 교회의 성령강림절에도 관련케 되었다.
- 8) 수전절(요10:22) - 수리아(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os Ⅱ Epiphanes)가 예 루살렘성전에 제우스(Zeus)의 제단을 세우게 하여 성전을 더럽혔는데, 주전 164년 기슬르월(태양력 11-12월)의 25일에 유다스 마카바이오스(Judas Makabaios)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회, 성전을 청소하고, 제단을 회복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지키게 된 절기가 이 수전절이다.

2. 맥추절을 지킬 곳

- 1)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신16:11) -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 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 2) 여호와 앞에서(신16:11)
절기는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절 기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의 은총을 감사하여,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게 지켜 야 합니다.

3. 맥추절을 지킬 이유

- 1) 첫 열매를 거두어서(출23:16) -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이니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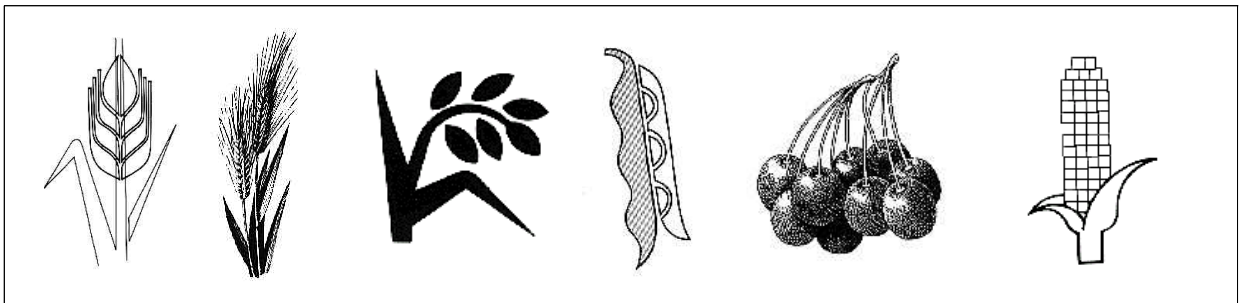
- 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年終)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 2) 여호와와 명령이니(출34:22) -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 3) 출애굽으로(신16: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4.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 1) 여호와께 보이며(출23:17) -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2)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대하8:13) -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 한 절기 곧 일 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 3) 복을 받은 대로(신16:10) -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 4) 자원한 예물을 드리며(신16:10)
 - 5) 즐거워하며(신16:11) -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 에서 즐거워할지니라"
 - 6) 아무 일도 하지 말고(민28:26) -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 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여"
 - 7) 성회로 모여서(민28:26)
 - 8) 온 백성이(신16:11)
- 즐거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지켜야 합니다. 잔칫날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이는 것처럼,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통일의 바람 이 불고 있습니다. 통일도 중요 합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온 백성, 온 가족, 온 마음을 원하 십니다. 전체가 다 절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5.맥추절을 지킨 결과

- 1) 여호와와 보호를 받음
-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누구도 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하 루를 살아갑니다.
- 2) 열방을 이김(출34:24)
- 열방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와 저기를 지키는 선민을 보호하기 위해 열방을 쫓아내십니 다. 고로 선민 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 때에는 이방에 포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년의 역사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를 좌우하는데 우리민족 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신을 숭 배하다보니 빛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 3) 지경의 넓힘의 받음(출34:24)
- 지경이 넓어집니다. 모든 것이 넓어집니다. 땅과 재산, 건강, 풍성한 수확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주 시는 것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면 유행하는 어린이 전염병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화지역 학생들의 홍역 집단발병에 이어 어린이들의 손발에 물집과 발진이 생기고, 입안에 물집이 동반되며 궤양이 생기는 '수족구(手足口)병' 환자도 최근 발견됐다. 홍역, 수두, 풍진 등 봄철에 유행하는 발진성 전염병의 예방법을 소개한다.

◇ 홍역

발열과 열꽃을 동반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8~12일의 잠복기를 지나 미열과 콧물과 기침과 눈의 염증이 3~4일간 지속된다. 그 후 높은 열이 나면서 발진이 생기는데 귀 뒤와 얼굴과 목 근처에 먼저 나타난 후 점점 온 몸으로 번져나간다.

5~6일후 열이 내리고 얼굴, 목 부위부터 발진이 나타났던 순서대로 발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발진이 소멸되면서 회복되는데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긴다.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렴, 급성 중이염 등이 잘 생기며 뇌염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도 올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환자가 생겼을 땐 발진이 돋기 6~7일 전부터 발진이 생긴 후 5일까지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발진이 생긴 후 4일간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홍역예방을 위한 백신은 1회 접종으로 95% 면역이 형성되며, 풍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의 백신과 동시에 혼합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째와 4~6세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요즘처럼 홍역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생후 6개월부터 홍역 단독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다.

◇ 수족구병

상당한 전염성이 있어 친구간이나 가족내 감염이 많다. 입안을 들여다보면 혀와 구강내 점막에 물집이 여러개 잡혀 있고 이것이 궤양을 일으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손바닥과 발바닥 및 다리에도 1~5mm정도 크기의 수포가 나타나는데 아프거나 간지럽지는 않다. 간혹 피부발진 없이 발열과 구강 점막 발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족구병은 입안이 아파서 잘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때는 차가운 음식을 주든지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5~7일 이내에 회복된다.

◇ 볼거리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잠복기는 2~3주일이며 침샘 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특징. 처음에는 얼굴 한쪽에서 시작하여 2~3주일 후 양쪽을 다 침범하게 된다. 볼거리는 예후가 좋아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때때로 바이러스성 뇌막염에 걸리는 빌미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12~15개월, 4~6세에 홍역잡풍진 백신과 함께 접종한다.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면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로 인해 면역 형성이 억제되므로 12~15개월 무렵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은 접종후 19~25년간 지속되고, 예방효과는 75~96% 정도인 것으로 조사돼 있다.

◇ 풍진

홍역보다 경과가 가벼우며 2~3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진과 귀 뒤, 목 뒤와 후두부의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인다. 발진은 얼굴에 처음 나타나나 2~3시간 내에 머리 팔 몸통 등 온 몸에 급속히 퍼지고 3일째 되는 날 없어진다.

임신중인 엄마가 풍진에 걸리면 태아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임여성은 임신에 대비 풍진예방백신을 맞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접종 3개월 전후에는 가능하면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대개 12~15개월, 4~6세에 홍역잡볼거리와 함께 접종하는데 사춘기 여자, 사춘기 이후의 가임기 여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감염위험그룹도 접종대상이 된다.

◇ 수두

증세가 홍역이나 볼거리보다는 가볍지만 물집이 1~2주일이나 계속되고 가려움증이 심해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병이다. 2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작은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곧 수포가 되어 터진 후 딱지가 앉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발진은 가슴과 등에서 먼저 시작해서 얼굴 팔 다리쪽으로 퍼진다. 생후 2~3개월만 지나도 감염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전염성은 보통 발진이 나타나기 24시간 전부터 딱지가 생길 때까지 유지된다. 예방접종은 만 1세때부터 가능하며, 항체가 생길 확률은 홍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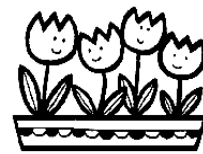
7월의 교회력

1	맥추절	8		15		22	헌신예배	29	찬양예배
	한국 최초 신학박사 남궁혁 목사 출생(1982) C.H. 스펔전 별세(1892)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발족(1975)		한국 최초 방문 선교사 귀츨라프 출생(1903)		삼동 소년촌 창설한 황광은 목사 별세(1970)		칼빈, 시편주석 출간(1557) 월간 「새사람」 발간(1937)		기독교 모든 교파를 일본 기독교선교단으로 강제 통합(1945) 헤르만 바빙크 별세(1965)
2	특별새벽기도회	9		16		23	여름성경학교	30	
	구세군 창설(1865)		크리스찬 신문 창간(1960)		극동방송국 일본어 개시(1965)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 D.T. 나일스 별세(1970) 로잔 국제복음화 대회 개최(1974)		한국에 온 선교사 미 공사관에서 첫 예배 드림(1886)		독일 신학자, 볼트만 별세(1976)
3		10		17	제헌절	24		31	
	머클레이 선교사에게 의료교육사업 윤허(1884)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 설립(1895)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출생(1509) 교육부 신학대 입학자격 세례이상 규정 삭제 요구(1995)		귀츨라프 목사, 백령도 상륙(1832)		대한성서공회, 점자성경 출간(1957)		완성된 NASB 첫 출간(1970)
4		11		18		25			
	스코틀랜드 선교사 마펏 출생(1870) 이성봉 목사 출생(1900) 기독교연합봉사단 구성, 삼풍참사 구호활동 전개(1995)		언더우드 선교사, 노춘경에게 비밀리에 최초 세례식 거행(1886)		조선기독교 연합회 결성(1938) 한국 기드온 선교회 창립(1972) 기독교장로회 제4차대회 개최(1974)		감리교 주일학교 연합회 창립(1963)		
5		12		19		26			
	태화기독교사회관 개관(1921) 민족운동가 남궁억 선생 별세(1939)		한국신학대학 인가(1947) 기독교교육협회 창립(1974)		언더우드 출생(1859) 알렌, 한국 정부 참판 벼슬 얻음(1885)		소래교회 설립자, 서상륜 출생(1848) 한국 보수신학교 협의회 창립(1976)		
6		13		20		27			
	종교개혁자 존 후스 별세(1415)		농민복음학교 창설자, 유재기 목사 별세(1949)		독일 루터교 신학자, 폴 틸리히 출생(1886)		주시경 선생 별세(1914) 장로교 첫 목사인 서경조 목사 별세(1938) 극동방송국 개국(1954)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문서발간위원회 모임 * 특별새벽기도회 8~14일 * 여름성경학교 23~25일 * 본 지 300부 발행
7		14		21		28			
	한국 침례교 신학대학 설립(1954)		교파연합 선교협의회 개최(1947)		한국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조직(1959)		메이천 출생(1881) 육군 군종감실 창설예배(1954)		

◎ 7월

1. 맥추절 감사주일 / 7월 1일
2. 침례문답 / 7월 1일 오후 1시
3. 신앙서적 /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4. 특별새벽기도회 / 7월 2~7일 주제 : 영적 성장과 변화
5. 여름성경학교 헌신예배 / 7월 22일 오후 8시
6. 여름성경학교 / 7월 23~25일 새벽 6시 오전 9시 오후 3시
주제 : 경제를 살리자
7. 찬양예배 / 7월 29일 오후 8시 주제 : 주께 헌신하는 자들

시사상식



- 님비 신드롬 -

Nimby syndrom ; Not in my back yard

‘내 뒤뜰에는 불가’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미국인들의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을 가리키는 말.

즉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 환자, 산업폐기물, 핵 폐기물을 수용 또는 처리할 마약 퇴치 센터나 방사능 오염 쓰레기 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시설들이 자기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특히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WIPONET -

WIPO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특허청의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하여 각종 특허정보를 주고받는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말한다.

WIPONET 구축사업은 WIPO가 1998년 3월 총회에서 98~99년도 회계연도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세계적인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그리고 사업의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집행기관인 정보기술 상설위원회(SCIT)를 통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및 세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WIPONET을 구축하려면 기존 인터넷을 근거로 각국 특허청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신인프라가 미비한 국가에 대해서는 통신망 구축을 확대하도록 하며 특허업무에 따른 보안유지를 위해 가상사설망을 도입해야 한다.

WIPONET은 향후,

△ 전세계 특허청의 개별 검색시스템을 통합해 지적재산권(지재권)

디지털라이브러리를 구축,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지재권정보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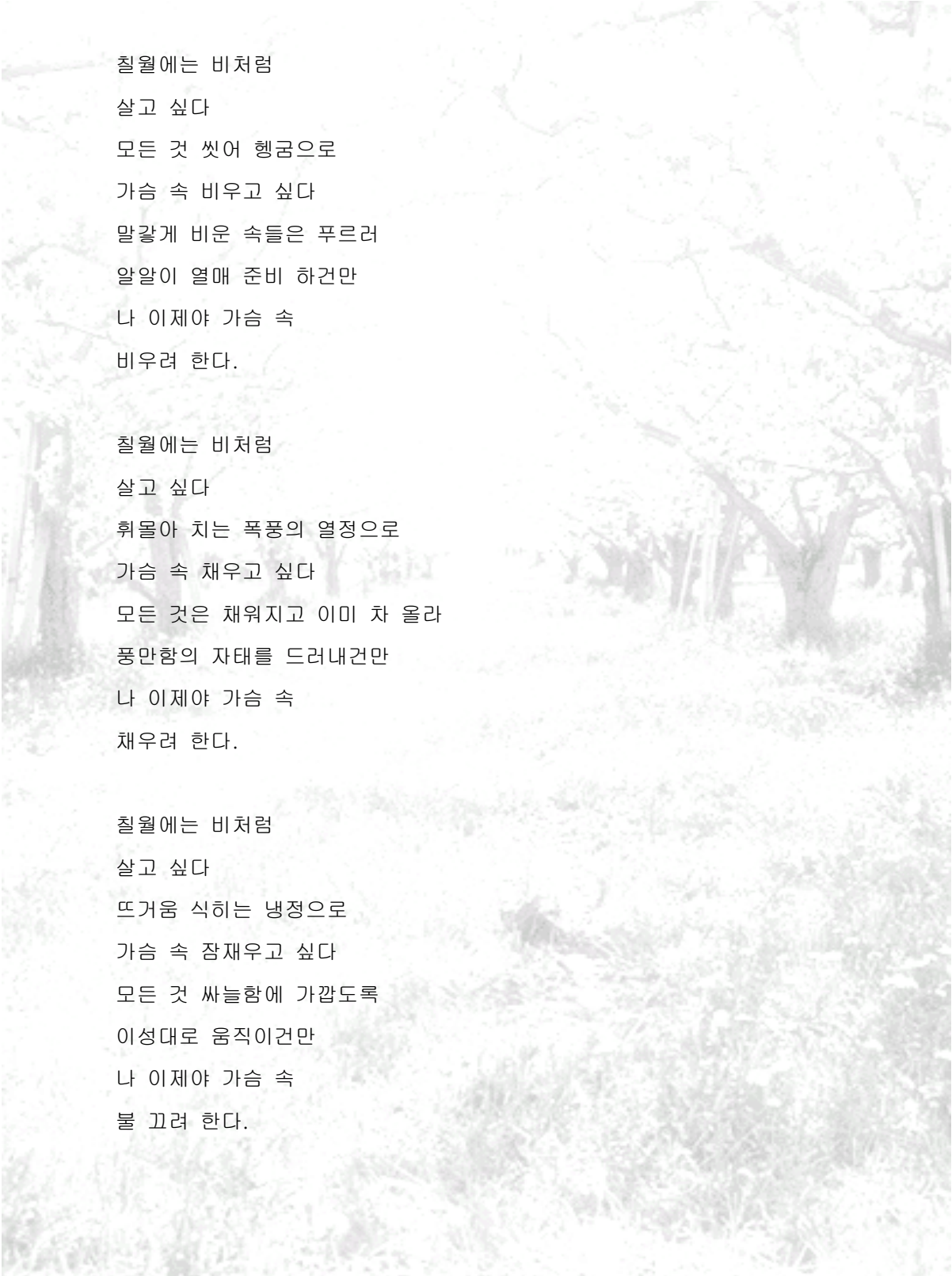
△ 국제특허(PCT) 전자출원서류 등 기밀서류에 대한 안전 상호지원

△ 세계 지재권 공동체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원격 지원.

WIPONET이 구축되면 각국 특허청간 네트워크 서비스 및 데이터 교환은 물론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확대함으로써 세계 특허정보 교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칠월에는"

이재윤



칠월에는 비처럼
살고 싶다
모든 것 씻어 행궁으로
가슴 속 비우고 싶다
말갈게 비운 속들은 푸르려
알알이 열매 준비 하건만
나 이제야 가슴 속
비우려 한다.

칠월에는 비처럼
살고 싶다
휘몰아 치는 폭풍의 열정으로
가슴 속 채우고 싶다
모든 것은 채워지고 이미 차 올라
풍만함의 자태를 드러내건만
나 이제야 가슴 속
채우려 한다.

칠월에는 비처럼
살고 싶다
뜨거움 식히는 냉정으로
가슴 속 잠재우고 싶다
모든 것 싸늘함에 가깝도록
이성대로 움직이건만
나 이제야 가슴 속
불 끄려 한다.



PDA는 Personal Digital Assistance의 약자이고, 개인 정보관리기라고도 한다.

PDA는 Personal Digital Assistanc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정보단말기로 번역한다. 노트북보다 훨씬 작은 소형 컴퓨터이며, 전자수첩보다 월등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

전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치(LCD)의 크기가 제한되며, 펜으로 문자를 써서 인식하게 하는 펜입력을 기본으로 한다.

PDA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대신 크기가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만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PDA는 자체적인 OS(Operating System)를 가질 뿐만 아니라 CPU, RAM, ROM, I/O, Device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물론 전자수첩 등과 달리 유저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주어지고 자신의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향상되었지만 휴대성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반면 PDA는 그 휴대성으로 승부하고 있다.

PDA는 정보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형 기기. PDA는 작고 가벼운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액세스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다양한 Application들을 펜을 통하여 간편하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팅 시대. 크기는 작지만 자신이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고 위치와 공간의 제한없이 네트워

크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PDA가 지향하는 모바일 컴퓨팅 세계이고, 우리는 지금 그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형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계속 경량화,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PDA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은, 빠르게 발전하는 무선통신기술의 지원 외에도 PDA의 컬러 디스플레이의 지원, 대용량 메모리 및 장시간 배터리등의 채용, 다양한 플랫폼의 지원 등으로 인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PDA는 최근 전자책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음악이나 동영상 감상할 수 있게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지하철 노선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생활의 도우미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선 기능이 보강돼 E메일이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다.

▽ 움직이는 사전, 성경책으로도 활용한다 : PDA만 있으면 무거운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영한, 한영, 국어 사전 등 몇 권의 사전을 PDA에 담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PC 통신이나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라있는 사전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PDA는 휴대용 전자사전으로 변신한다.

기독교신자나 성경에 관심이 많다면 성경책 데이터를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 멀티미디어 활용 : PDA에 사진을 저장해두고 앨범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 자료실에 올라있는 멀티미디어파일 뷰어나 사진앨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각종 사진과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컬러 액정화면(LCD)을 장착한 화면도 와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해 감상할 수도 있다.

▽ 다채로운 확장기능 : 미국의 바이저사는 확장기능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확장모듈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해주는 것부터 무선인터넷장치, 게임팩, MP3 플레이어, GPS수신기,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다.

확장팩만 연결하면 PDA가 게임기나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등으로 변신하는 셈.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셀빅의 일부 기종은 휴대전화기에 연결해 쓸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공한다.

▽ 생활 도우미 기능 : 인터넷 메일검색이나 주소록 관리의 기본. 약속시간이나 기념일을 통보해주는 비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중에는 금전출납부나 차계부 프로그램도 다수. 식사내기 등에 활용되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까지 개발돼 있다.

주요 도시 지하철, 버스노선을 담아두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세계 주요 도시별로 관광정보 데이터북도 올라 있어 해외여행시 두꺼운 여행가이드북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생활 응용프로그램은 쓰리콤사의 '팜'용이 1만여종, 국내 제품인 셀빅용이 300여종 있다.

▽ 2001년의 PDA는 어떤 모습 : PDA와 휴대전화의 통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무선인터넷 통신에 초점을 둔 2.5세대 CDMA서비스가 시작된데 이어 사업자를 선정한 IMT-2000의 상용화도 본격화하면서 PDA에 기반한 휴대단말기 제품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도 즐기면서 휴대전화도 가능한 PDA가 등장하는 셈.이 경우 PDA로 주문형영상(VOD)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블루투스 규격이 대중화하면서 PC나 프린터 등에 무선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품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목사

1. 김동혁목사 접대 / 17일
2. 인동진선교사 접대 / 28일
3. 교회 보수공사 사역 / 11~30일
4. 개업예배 / 장민숙성도
행복다방(예산읍 고덕리)
5. 기업예배 / 주복카(9일)
6. 세미나 강의 / 영적성장(21일)
제직(28일)
교사(28일)
7. 수련회 기획회의 / 7월 9일

교인

1. 출산 / 김민희성도(5/26)
득남(
김옥자성도(6/22)
득남(황길호)
이명란성도(6/27),
득남(오준석)
2. 이사 / 황대구성도(김옥자성도)
송산면 유곡리 산 85-7
☎ 352-3520

교회

1. 교회수리 / 상·하수도, 성전지붕
성전지붕, 교육관보일러,
샤워장 보수
2. 헌신예배 / 마리아여선교회(6/3)
에스더여선교회(6/17)
한나여선교회(7/1)
3. 인쇄기 설치 / 순복음Life지
300부 발행
4. 예배 녹화, 녹음 / 교회 홈페이지에
서 첨부가능
5. 축하 금일봉 / 6월 출산 가정에 전
달(김옥자성도, 이명란성도)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3월) 오후 8:00(4월~10월)	
			아침 예배	오전 11시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교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	오후 예배	오후 3시	
	학생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청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기도	장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년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2회(사무실)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회(사무실)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조직신학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창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모임	성가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습	오후 5시, 8시	
활동	울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 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 ~ 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기도
			3시팀	오후 3시	
			9시팀	오후 9시	
문서	월요	문서발간위원회		오전 11시	순복음Life지
		행정팀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순복음 Life」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동과 사명감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표지 1면을 참고 은행계좌번호 481076-56-044087(농협) 예금주-김미진

1	2			3		4	
				5	6		7
8			9				
11			12	14	13		14
			15				
16							17

<세로 열쇠>

1.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 비느하스의 후손이다(스 8장).
5. 천사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8. 사울이 이 곳에서 블레셋을 대적하다가 패하여 죽음(삼상 28장)
11.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는가?(막 1장)
13. 인간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책은?
15. 제 2차 전도여행시 바울이 아덴을 떠나 도착한 곳은(행 18:1)
16. 물을 막아 쌓은 둑(잠 17장).
17. 예수님께서 알파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있던 곳은?(막 2:14)

2.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왕은?(왕상 14장)
3.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이며,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가 후에 죽었던 곳은?(삿 16장)
4. 자기의 죄를 고백함. 원어적인 의미로는 '돌이키다, 마음을 고치다' 라는 뜻임.
6.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새다를 책망하실 때 비교된 도시 이름은 OO과 시돈이다(마 11:21).
7. 나는 OO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호 6:6).
9.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OO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
10.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총독은?(마 27장)
11. 양쪽 문설주 아래에 가로댄 나무 돌을 말한다(삿 19장).
12.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바울이 너무 OO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고후 12:7).
13.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14. 율법학자이지만 그들의 외식함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임을 받았던 사람들은?(마 23장)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7월 22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6호 당첨자 시상 - 1등 : 이옥희집사, 2등 : 허월석성도 3등 : 김종숙권사

참가상 : 허선영권찰, 권복순집사, 장명희권찰, 고승희집사, 최순환권사, 원재옥집사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계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편 집 : 한승권 목사
도우미 : 류정훈 성도
김진숙 선생

